

사진기자의 단상

쓰레기통의 재발견



예쁜 꽃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속에 피어난 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렇게 화분으로 쓰일 수 있다니... 뜻밖이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른바 음식물 쓰레기통의 재발견 아닙니까.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식당 앞에서 핀 분꽃, 복숭아꽃을 보다가 색다른 화분이 눈길을 잡아당기더군요. 음식물 쓰레기통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담겨 있는 것을 떠올린다면 분명 의외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의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것 같네요. 곧 더럽지만 같은 꽃망울의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값싸고 모양 좋은 화분 대신 왜 쓰레기통으로 썼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분꽃을 가꾸던 주인은 "낡고 더러운 쓰레기통도 버리지 않고 쓸 용도를 궁리하다 보면 활용할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뜯어 보면 새롭게 보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깨끗해 질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재활용 아이템을 찾는 것, 보람있는 일입니다. 특히 보는 이들을 모두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기쁨은 더욱 크겠죠.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이봉형

한여름의 고3 교실, 학생들의 눈매가 살아있다. 더 좋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희망 학과를 물어보면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다. 대학 가기가 목표이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떠한 진로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학생들은 답답 교사와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한다. 그 내용은 진로 선택보다는 공부하는 방법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소연이 대부분이다. 진로 선택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쉽게 회의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계인의 꿈이 되었다. 그의 꿈 덕분에 미국에서는 최소한 드러내 놓고 인종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체 게바라나 김 목사와 같은 꿈을 가질 수는 없을까? 꿈과 포부는 교사의 충고나 조언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꿈을 하나씩 선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고3 학생들은 꿈을 갖기에 너무 늦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도록 신문 읽기를 권하고 자신이 자기 삶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주자.

고3 학생들이 꿈을 갖는 일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은 빌 게이츠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빌 게이츠는 32년 만에 하버드 졸업장을 받고 졸업생들에게 세계의 불평등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대학 시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불평등에 대해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라고 연설했다. 그는 내년부터 MS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빌&멜린다 재단 자선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고3 교실 꿈의 열기로 가득 채우자

학생들은 꿈과 직업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대학 학과 또한 직업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대중에 선호하는 직업군에 관심이 몰려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보다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얽매어 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 평한 체 게바라를 위해 인술을 퍼졌다는 꿈을 품었다는 이 세계의 모순을 먼저 치료하기로 결심, 1965년 4월 쿠바혁명을 성공시킨다. 그는 보장된 2인자 자리를 스스로 내던지고 볼리비아의 민중을 위한 투쟁을 펼치다가 처형된 삶을 살았다. 그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엔 언제나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고 외쳤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꿈을 꾸었다. 이제 그의 꿈은 세

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빌&멜린다 재단 자선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대입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두고 대학과 교육부의 옥신각신 속에서 진정 불만에 떨고 있는 이들은 바로 고3 학생들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로 본다면 너무 어찌구무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바로 학생들을 점수 올리기에 내몰고 꿈을 박탈하지 않았는가 되짚어 본다.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꿈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를 권유하고 싶다.

방학 중에 적어도 하루는 봉사활동에 매진하도록 권해 보자. 거기에서 오는 보람은 새로운 꿈을 잉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TV 전원을 끄고 책을 선물하자. 책 속에서 상상을 하고 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은 가능하면 '나를 포함한 우리'의 꿈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고3 교실이 더위의 열기가 아닌 꿈의 열기로 가득 채워 나가길 바란다.

(중암고등학교 교사)

뉴스퀴즈

72. 평창이 '철의 장막' 크럼린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창은 지난 5일(한국시간)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19차 총회 2014년 개최지 결정 2차투표에서 러시아의 소치에 47-5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4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역전패를 당해 2회 연속 행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 ① 동계올림픽
- ② 동계유니버시아드
- ③ 월드컵축구
- ④ 동계아시안게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6일 乙酉)

子	36년생 흉이 변화하여 길이 될 것이니 준비는 잘하라. 48년생 가내 실속 재점검 하라. 60년생 서로 이해하면 서로 득이다. 72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다. 84년생 일에 강박을 만나는 형상이니 가족 간에 협조해야 극복한다. 행운의 숫자 : 03,45
丑	37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부하다. 49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재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61년생 도둑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3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자신의 안정을 기하라. 85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1,35
寅	38년생 실리는 있으나 실망 말고 진행하라. 50년생 과한 친절과 서두르는 사람의 자기조절을 경계해야 하라. 62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소해야 좋으리라. 74년생 오늘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04,44
卯	39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51년생 문서를 읽고 있는 형상으로 재사가 순조롭다. 63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5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6,37
辰	40년생 미리서 신중함 체면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고, 52년생 고갱이 우려된다. 64년생 타인의 중성도막 기만을 만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라. 76년생 많은 조성이 필요함 하루다. 행운의 숫자 : 07,40
巳	41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3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5년생 지난 문서를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77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행운의 숫자 : 14,38
午	42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이다. 54년생 현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절대속소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8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12,30
未	43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5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7년생 얻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9년생 전극이면 대수 불면하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 11,34
申	44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6년생 잠정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8년생 걱정을 버려라. 80년생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80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 09,36
酉	45년생 중인의 협조가 새로운 격이요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57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요. 69년생 부자는 미루라. 81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 21,25
戌	46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으나 곧 풀리리라. 58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금전한다. 70년생 관과, 재과, 생과가 우려된다. 82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05,26
亥	47년생 직업과 재물을 불리한 문체가 발생하니 각별 주의가 요망된다. 59년생 부부사이에 확신이 필요하다. 71년생 불연이던 애인과 이별도. 83년생 흥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7,2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국면의 포인트 5보(77~101)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관처럼 88로 밀어 올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가 완착이 되었다. 노련한 김광식 5단이 89로 여계를 짚어가자 백 세력이 볼품없이 쭈그러 졌다. 백 88로는 '참고도'의 백 1을 선수하고 3으로 중앙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컸으며 이것이 백이 나쁘지 않았다. 기세상 백 92로 공격해 왔으나 이 흑은 쉽게 잡힐 일이 아니다. 완력파인 김광식 5단은 도망가는데 그치지 않고 101로 강력히 항거하고 있다.

<유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박영훈, 후지쓰배 정상

박영훈 9단이 제20회 후지쓰배 세계 바둑선수권대회에서 이창호 9단을 꺾고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박 9단은 9일 일본 도쿄 일본기원 특설대극장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국 결승에서 252수 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으로 1집 반승을 거뒀다.

박영훈은 2004년에 이어 3년만에 후지쓰배 우승컵을 차지하며 2년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반면 3번째 이 대회 타이틀을 노렸던 이 9단은 박 9단의 노련한 끝내기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박영훈의 우승으로 1998년 제11회 대회 이후 10연패의 위엄을 달성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굿모닝 잉글리쉬 <944></p> <p>Let's get down to the main issue.</p> <p>주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p> <p>A : Hey, how was your weekend? B : Oh! great! C : Sorry for interrupting, but let's get down to the main issue. We have a lot to discuss today. A : Absolutely!</p> <p>A : 안녕하세요, 주말 어땠어요? B : 아, 좋았지요! C :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주제로 들어가시죠. 오늘 논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A : 당연히 그래야죠!</p> <p>* main issue = main business = main subject * get down to ~ = ~을 시작하다 * interrupt : v. 가로막다. 방해하다 * 모두들 약간 피곤해 보이군요. 20분 동안 쉬까요? = You all look a bit tired. Shall we take a break for 20 minutes?</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944></p> <p>税関(ぜいかん)で引(ひ)っ掛(か)かっちゃって。</p> <p>세관에 걸려 버려서.</p> <p>A : 今から空港(くうこう)へ行くそうですね。誰(だれ)かお迎(むか)えですか。 B : いいえ、この前日本からノートパソコンを買ってきたんですけど、税関(ぜいかん)で引(ひ)っ掛(か)かっちゃって。 A : でも、自分で使うものなんですよ。 B : ええ、それが新品(しんぴん)なんですけど、箱(はこ)に入れてたまま持ってきたのがまずかったみたいです。</p> <p>A : 지금부터 공항에 간다고 합디만. 누구 마중 갑니까. B : 아니요. 일전에 일본에서 컴퓨터를 사 왔습니다만, 세관에 걸려버려서. A :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B : 예에, 그것이 신제품입니다만, 상자에 넣은 채로 가지고 온 것이 서툴렀는 것 같아요.</p> <p>入(い)れたまま : 넣은채로 まずかったみたい : 서툴렀는 것 같다 新品(しんぴん) : 신제품</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34></p> <p>我跟你一起打扫</p> <p>너와 함께 청소하다</p> <p>A : 我有很多衣服要洗, 客厅也该打扫了。 Wǒ yǒu hěn duō yīfú yào xǐ, kètīng yě gāi dǎsǎo le. 워 유 후오 이푸 요오 시, 케팅 예 가이 다오오 레. B : 明天再打扫吧, 今天去逛街。 Míngtiān zài dǎsǎo ba, jīntiān qù guǎn gài. 밍티안 재 다오오 바, 진티안 구 구안 가이. A : 不行, 今天的事情今天做。 Bùxíng, jīntiān de shìqing jīntiān zuò. 부싱, 진티안 데 시칭 진티안 저오. B : 那, 我跟你一起打扫吧。 Nà, wǒ gēn nǐ yìqǐ dǎsǎo ba. 나, 워 겐 니 이기 다오오 바.</p> <p>A : 나 빨래도 아주 많이 있고,客廳실도 청소해야돼. B : 내일 너서 청소하고, 오늘은 쇼핑하러 가자. A : 안돼, 오늘 맑은 오늘 해야지. B : 그럼, 우리 같이 청소하자.</p> <p>打扫 [dǎsǎo] 청소 客厅 [kètīng] 객실, 응접실 事情 [shìqing] 일, 사건</p> <p><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8</p>	<p>한자 이야기 <561></p> <p>白眼視(백안시)</p> <p>흰 백, 눈 안, 볼 시</p> <p>백안시(白眼視)는 흰 눈으로 본다는 의미로, 눈을 비껴서 흘려보기 때문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냉정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반면 검은 눈동자로 정감어리게 보는 것을 청안시(靑眼視)라고 한다.</p> <p>'백안'과 '청안'은 위진(魏晉) 시대에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유명한 완적(阮籍)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다. 완적은 노장(老莊)철학에 심취하여 예의범절에 얽매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와도 울러미 손님들을 응시하다가, 조문객에 대한 예절인 곡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쁨과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검은 눈동자(靑眼)와 흰자위(白眼)로 호(好) 불호(不好)를 나타내었다.</p> <p>어느 날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형 혜희가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찾아왔으나 완적은 흰 눈으로 흘려보며 상대해 주지 않았다. 다음날 동생 혜강이 술과 거문고를 들고 찾아가자, 완적은 크게 기뻐하며 검은 눈동자를 보이면서 환영했다고 한다. 완적은 혜희를 속세의 지식인으로 보고 백안시(白眼視)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야(朝野)의 지식인들은 완적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 몹시 미워했다고 한다.</p> <p><한여원(韓孝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p>
--	--	--	--